

京城齒科專問學校를 1941년에卒業하신 劉淳慶先生님은 出生地가 開城이다.

17대를 살아온 터라 開城에서 500餘年을 살아왔다. 이제 數 10年 동안 祖上의 혼백이 묻힌 故鄉을 가지 못하는 恨을 풀 길이 없다.

開城松都高等學校를 거쳐 齒專을 나와 齒科醫師가 된 後로는 咸北 城津에서 첫 開業을 始作했다. 8.15 解放과 더불어 共產治下에 들어간 北韓에서는 個人病院이 許容되지 않았다. 「주파 軍需物工場 附屬病院 齒科」에 勤務했으나 制約된 社會構造 속에서 醫師生活을 한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1946年 越南, 서울 西大門區 阿峴洞에서 劉齒科를 開業, 比較的 平坦한 生活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共產魔手는 6.25 動亂을 이르켰고 平和된 서울시는 순식간에 죽음의 都市로 變했다.

大邱에 잠시 避亂했다가 서울에 還都, 지금의 海南빌딩 자리에서 平生을 한 곳에서 平凡한 齒科醫師로서 定着을 하고져 齒科醫院을 開設, 차분한 마음으로 誠心것 患者를 診療했다. 그러나 이게 韋일인가. 이제는 또 큰 빌딩을 지어야겠으니 撤去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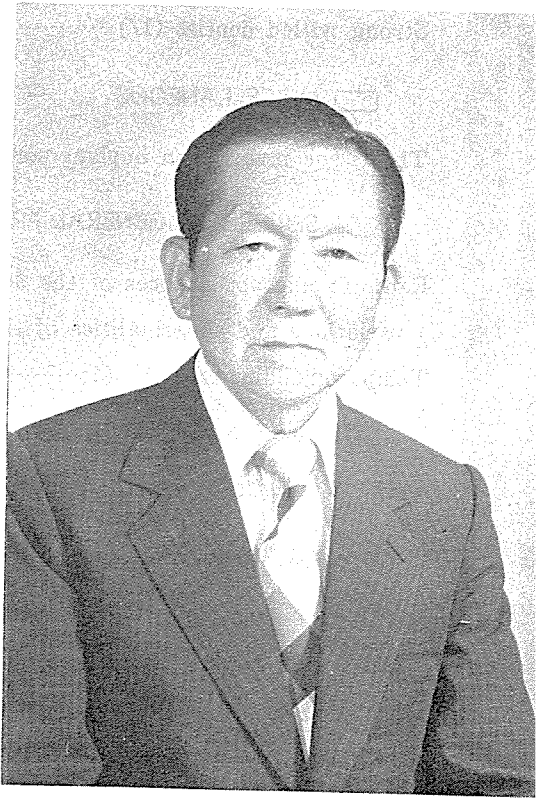
그때가 1964年の 일이다. 이것이 基地村(東豆川)에 定着하게 된 動機이다.

「近 40年에 齒科醫師生活中 나같이 많이 자리를 轉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정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趣味를 묻는 萬壽無疆子에게 「夕陽盃 한잔이 趣味인데 술친구의 거의가 他界했으며 健康上 술을 마시지 못하니 사는 재미가 별로 없다.」고 하신다.

京畿道 楊州郡 東豆川邑 生淵五里
劉齒科醫院 劉 淳 慶
전화 3346

劉 淳 慶 先生님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